

##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조보배\*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이 어떠한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며, 집단별로 남성과 여성, 가구의 특성이 상이한지를 살펴보고, 하위 집단에 따라 이들의 주관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439쌍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시간, 가정관리시간, 자녀돌봄시간을 변수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총 3개의 상이한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형에 따라 이들의 남녀의 개별 특성과 가구의 특성의 차이,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은 남성 장시간-여성 표준시간 형태로 일 시간을 배분하며,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전담하는 형태로 시간을 배분을 하며, 이들 중 돌봄의 책임이 많은 일부 맞벌이 부부는 여성이 반일제 노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사와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나, 이들 여성의 노동시장의 지위는 낮아 이들 부부의 가구 소득도 낮고 부부의 삶의 만족도도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장의 지위가 높은 일부 소수의 맞벌이 부부는 노동시간과 가사돌봄시간을 남녀간에 유사하게 배분하는 젠더 평등한 시간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이 이들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는 계층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문화의 변화,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자녀 수에 따른 소득지원의 필요성을 정책제언으로 언급하였다.

주제어 :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시간 배분, 젠더 평등,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유형화 연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bobaejo@kihasa.re.kr)

## I. 들어가며

자녀 양육비용을 포함한 가계지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020년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의 45.4%로(통계청, 2022),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약 절반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시장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의 책임을 동시에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시장노동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사용하여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동시에 수행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일과 가사노동에 시간을 배분하고 있을까?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의 양을 살펴본 서지원(2015)의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담당하고 있어 시장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의 합한 총 노동시간의 경우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1시간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즉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내에서의 성 역할 분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을 따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짐으로써 맞벌이 비중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자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며, OECD 국가 중 한국은 아동의 보육기관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많은 상황은 사실상 맞벌이를 선택하는 경우 무급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편중되는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만이 무급노동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허수연(2008)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가사노동의 시간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이들의 가용시간과 남성의 성 역할 태도는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의 양을 설명하는 변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허수연, 2008). 즉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 많은 경우,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시간을 유형화한 신영민과 황규성(2016)의 연구에 따르면, 단시간-저소득 유형, 장시간-중위소득의 유

형, 표준시간-고소득 유형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표준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나, 이하의 집단에서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길거나 혹은 노동시간은 짧으나 소득이 적은 상황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이에 허수연(2008)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가용시간(time availability) 즉 실제 무급노동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라고 한다면, 이는 이들의 노동시장의 지위나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화되는 양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기존 국내 연구 중 기혼 부부, 맞벌이 부부 혹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시간을 유형화 한 연구들이 존재하나(김진옥·최영준, 2012; 김주희·이기영, 2015; 조미라, 2018; 권소영·이재림, 2019), 이들 연구는 전체 기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돌봄노동이 집중되는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로 대상을 한정하지 못했거나(김주희·이기영, 2015; 조미라, 2018; 권소영·이재림, 2019),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맞벌이가 아닌 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김진옥·최영준, 2012)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과 돌봄의 책임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과 돌봄의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는 어린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 시간으로 유형화하여 이들 부부의 시간배분을 살펴봄과, 유형화 결과에 따라 이들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지 집단 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유형화 결과에 따라 맞벌이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와 시간부족감 등 주관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현재 선진국에서의 젠더 평등을 위한 초점은 ‘어떻게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더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은, 어쩌면 가정 내에서의 무급노동의 배분을 성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과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sup>1)</sup>

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젠더평등한 시간배분’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의 시장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투여되는 시간에 있어서 성별격차가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즉 각 영역의 투여된 남녀의 시간 차이가 적은 경우를 젠더평등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사실상 시간의 ‘양’만을 고려한 것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가정일과 육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여성이 맡으며, 남성들이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이 여전히 보조적인 역할로써 남아 있다면, 단순히 투여된 시간의 ‘양’만을 가지고 젠더 평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시간자료로 이러한 부분까지를 살펴보기 어려운 한

## II. 연구 질문 및 분석 방법

###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의 필요가 큰 미취학 아동과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하는데, 구슬이·정익중(2021)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2번째 위기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방과 후 기관을 통한 돌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더불어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역시 자녀 돌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가구를 포함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구 내에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맞벌이 가구가 분석대상이다. 맞벌이 기준은 부부 모두 경제활동 중인 가구로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시장노동과 무급노동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 활동을 하는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sup>2)</sup> 더불어 이들의 가사분담과 돌봄 시간 배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sup>3)</sup>

분석 자료는 본 단위로 기입된 시간일지 방식 조사인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에는 평일 시간만을 포함한다.<sup>4)</sup> 금요일은 평일

---

계를 가지며, 시간의 양만을 고려하여 젠더평등을 논하는 것은 본 연구를 포함한 시간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2)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동거 맞벌이 가구 중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전체의 64.4%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며(통계청, 2017), 이에 임금근로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할 경우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3) 또한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조부모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조부모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경우 일반적으로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에 대한 시간 배분이 다른 집단과 매우 상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4) 맞벌이 가구의 평일과 주말의 시간 배분이 상이할 수 있으며(Stella and Sara, 2012), 평일에 끝내지 못한 가사노동을 주말에 수행하기 때문에 부부의 주말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 서로 다른 가구가 2일씩(금토, 일월, 화수, 목

과 주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금요일 자료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sup>5)</sup> 생활시간조사 서로 다른 가구가 2일씩(금토, 일월, 화수, 목금, 토일)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자료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월, 화, 목요일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sup>6)</sup>

## 2. 연구질문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연구 질문 1. 돌봄의 책임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자녀 돌봄에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가?**

세부 질문 1.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은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가?

세부 질문 2. 일과 가사노동, 자녀돌봄 시간 배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시간을 배분하는 집단도 존재하는가?

**연구 질문 2. 이러한 시간 배분 전략의 차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가진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

세부 질문 1. 유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직종, 가구소득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세부 질문 2. 젠더 평등한 시간 배분을 하는 맞벌이 부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

금, 토일)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일부의 가구는 평일의 시간만, 일부는 주말의 시간만, 일부는 평일과 주말 시간이 조사되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의 평일과 주말 시간을 함께 살펴보기 어렵다. 이에 사실상 노동이 집약되는 ‘평일’ 시간 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5) 김주희(2012)의 시간 유형화 연구에서도 평일과 주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요일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6)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사 일에 휴직이거나 휴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요일의 일 시간이 0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화요일 자료에서 일 시간이 0이지만, 수요일에서 일 시간이 0인 아닌 경우 수요일 시간 자료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 연구 질문 3. 이러한 시간 배분의 차이에 따라 맞벌이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시간부족감, 피로감, 만족도 등)에도 차이를 보이는가?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인 맞벌이 남녀의 시간배분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남성 유급노동시간, 남성 가사노동시간, 남성 자녀돌봄시간, 여성 유급노동시간, 여성 가사노동시간, 여성 자녀돌봄시간 총 6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시행한다.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집단 내 이질성을 실제 관찰가능한 변수를 통해 상이한 집단을 구별하는 유형화 방법으로(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 기존의 군집분석의 경우 군집의 수를 연구자가 임의로 구분해야 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유형화의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기준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형화 분석에 있어서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의 유형화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 통계적 모형적합도, ② entropy, ③ 집단 비율이 있다.<sup>7)</sup>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패키지인 Stata에서는 유형화 집단 수에 따라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criterion)중 AIC와 BIC의 두 개의 값을 제시해준다. 이에 해당 값을 기준으로 해당 값이 작을수록 적절한 유형화 개수로 판단하며, 이와 함께 각 집단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에 따르면 집단 비율에 대한 기준으로, 각 유형별 표본 수가 50개 이상이거나 해당 유형의 사례 수가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 12).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화의 개수를 판단할 것이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의 결과 중 어떠한 시간을 일시간, 가

7) 모형적합도는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criterion)와 우도비 검정의 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정보준거지수로는 AIC, BIC, ABIC 값이 있는데, 해당 값이 작을수록 유형화의 개수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우도비 검정은 Lo-Mendell-Rubin 우도비 검정(LMR likelihood ratio test), 조정된 LMR 우도비 검정(adjusted LMR LR)과 부스트랩 우도비 검정(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이 있으며, p값을 통해 k 집단과 k-1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entropy는 집단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값으로(0과 1 사이의 값) 1에 가까울수록 집단 분류가 적절함을 의미한다(유성경 외, 2020: 119).

정관리시간, 자녀돌봄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존 유형화 연구(김주희·이기영, 2015)를 참고하여 생활시간조사의 일시간과 가정관리시간, 자녀돌봄시간의 구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간은 제외하였으며(예를 들어 일 시간 중 구직이나 창업 시간, 자가소비를 위한 일 시간은 제외함), 이와 관련된 이동시간은 포함하는 방식(예를 들어 출퇴근,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일 시간에 포함)으로 각 영역의 시간을 정의하였다(참고<표 1>).

<표 1> 일시간과 가정관리시간 자녀돌봄시간의 조작적 정의

구분	조작적 정의		
일시간*	2 일	21 법인,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일	22 가게 비 법인 기업 일
		23 무급가족 일	24 기타 일 관련 활동
	9 이동	921 출근	922 퇴근
		923 출장 및 기타 일 관련 이동	
가정관리시간	4 가정관리	41 음식준비	42 의류 관리
		43 청소 및 정리	44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45 차량 관리 및 유지	46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4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49 기타 가정관리
	9 이동	940 가정관리 관련 이동	
자녀돌봄시간	5 가족 및 구성원 돌보기	51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52 만 10세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951 만 10세 미만 아동 돌보기 관련 이동	
	9 이동	952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관련 이동	

주: \* 통계청의 일시간의 분류 중 25 구직 및 창업활동, 26 자가소비를 위한 일은 제외하였으며, 이동시간 중 924 자가소비 일 관련 이동은 제외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전략의 차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가진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부의 시간으로 유형화한 결과에 따라 집단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상이한 전략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 집단 중 남성과 여성의 일시간과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이 유사한 집단이 있다면, 즉 젠더평등한 시간배분을 하고 있다면, 이들은 다른 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확인한다. 기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소득수준, 종사상지위 등의 직장변수, 가구소득, 돌봄이 필요한 자녀 수, 막내자녀의 연령, (배우자 이외)돌봄자 유무 등 가구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진옥·고은주, 2014; 장연주·이기

영·최현자, 2012; 차승은, 2010).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변수를 기준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참고<표 2>).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장변수는 개인 변수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봄, 가족 변수는 성별과 상관없이 해당 가구 내에서는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성별 구분 없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마지막 연구 질문인 시간 배분의 차이로 인해 맞벌이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시간부족감, 만족도 등)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시간부족감, 피곤함, 삶 만족도, 가사 분담 만족도에 대해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이를 4점 척도, 5점 척도 방식으로 이를 조사하고 있다(참고<표 3>). 집단 간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한다.

〈표 2〉 집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의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연령	만 연령(세)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2년제 포함), 대학원졸 이상
성역할태도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관념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 태도임. 1=적극 찬성 2=약간 찬성 3=약간 반대 4=적극 반대
직장변수	
직업유형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기술직, 단순노무직, 직업군인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개인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취업형태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가구변수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가구원 수	명
10세 미만 자녀수	명
막내자녀 연령	세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 안 함. 동거
자가소유 여부	자기집. 전세, 월세



〈표 3〉 주관적 인식 변수의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만족도 및 시간부족감	
시간 부족함	1: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 2: 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3: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4: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피곤함	1: 전혀 피곤하지 않음 2: 거의 피곤하지 않음 3: 조금 피곤함 4: 매우 피곤함
삶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가사분담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주: 시간부족함, 피곤함, 삶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역 코딩한 것이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과 피곤함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III. 분석 결과

#### 1.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유형화 분석 결과

돌봄의 책임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439가구)의 남성과 여성의 일 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을 기준으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유형화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유형화 개수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패키지인 Stata에서는 유형화 집단 수에 따라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criterion) 중 AIC와 BIC의 두 개의 값을 제시하는데(참고〈표 4〉), BIC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나, 4개 이상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전체 사례 수의 3% 수준을 차지하는 유형이 도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유형의 사례수 역시 14개로 나타난다(참고〈표 5〉). 더불어 3개 집단으로 유형화한 경우와 비교하여 4개 집단으로 유형화 한 경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남녀가 평등하게 일과 가사시간을 배분하는 부부 이외의 집단에서 세부 유형이 도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sup>8)</sup> 이에 본 연구의

8) 4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경우, 3개 유형화를 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3개로 유형화한 집단 중에서 3번째 유형인) 남성일 시간이 많고 여성 일시간이 적은 집단에서의 추가 유형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평등한 시간 배분을 사용

목적과 전체 사례 수를 고려하여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 수를 결정하였다.

〈표 4〉 모형 적합도 기준(AIC와 BIC)

모형	N	AIC	BIC
2개 집단 유형화	439	30409.8	30487.4
3개 집단 유형화	439	30206.14	30312.34
4개 집단 유형화	439	30148.43	30283.21
5개 집단 유형화	439	30039.14	30202.52
6개 집단 유형화	439	30018.45	302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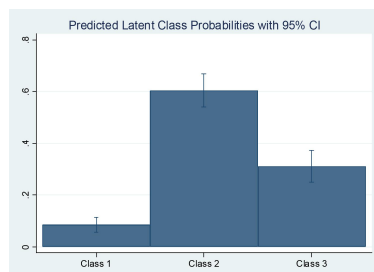
〈표 5〉 모형 진단 기준

모형	작은 작은 집단의 사례수	가장 작은 집단의 비중
3개 집단 유형화	35	7.97%
4개 집단 유형화	14	3.19%
5개 집단 유형화	10	2.28%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를 시행한 결과, 잠재 계층 한계 확률을 살펴보면, 1유형은 8.5%, 2유형은 60.5%, 3유형은 31%로(참고〈표 6〉),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이 2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3유형의 비중이 높고 1유형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잠재계층한계확률

	한계확률	95% 신뢰구간	
1유형	.0849877	.0598106	.1194169
2유형	.6052134	.5409153	.6660656
3유형	.3097989	.2529784	.3730091



그렇다면 이들 유형이 지니는 특징은 무엇인가? 즉 맞벌이 남성과 여성은 어떠한 상이한 전략으로 일시간과 가정관리시간, 자녀돌봄시간을 배분하고 있는가?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유형부터 살펴보게 되면(전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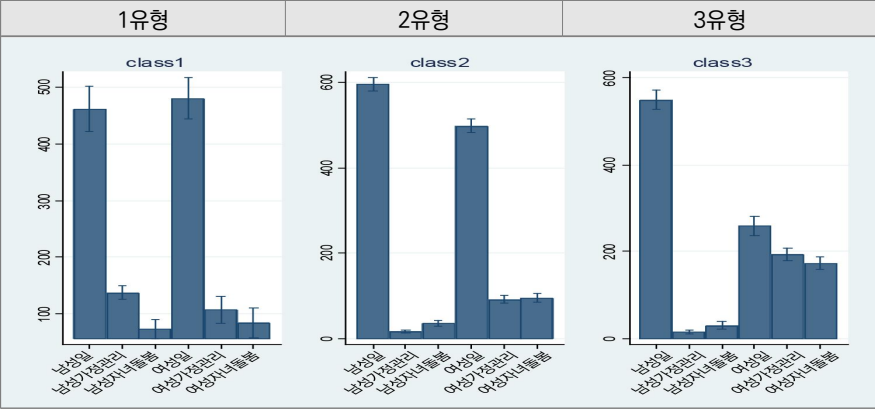
하는 집단의 특성을 보는 것에 있어서 3개의 유형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60.5%), 남성의 일 시간은 9시간 55분으로 하루 약 1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8시간 18분으로 표준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참고<표 7>). 그러나 이들 부부의 무급노동 시간의 배분을 살펴보면, 남성은 17분의 가사노동과 36분의 자녀 돌봄으로, 하루 중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무급노동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여성은 하루 1시간 31분의 가사노동, 1시간 35분을 자녀 돌봄에 할애함으로써, 하루 약 3시간의 무급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부부의 전체 노동시간(일, 가정관리, 자녀돌봄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은 10시간 48분, 여성은 11시간 24분으로 나타난다. 이를 표준 유형(Standard model: 유형2)으로 칭하는데 해당 유형이 어린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를 '표준'모형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번째 유형의 경우(전체의 31%), 남성의 일 시간은 9시간 10분으로 전일제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일 시간은 4시간 19분으로 반일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여성의 가정관리 시간은 3시간 13분, 자녀돌봄 시간은 2시간 53분으로 여성의 일 시간은 적고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이 매우 높은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을 상대적 남성 생계부양자 유형(Relative male-bread winner model: 유형3)으로 칭하는데, 사실상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부분의 무급노동을 전담함으로써 사실상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2유형의 남성과 비교했을 때 3유형 남성은 일 시간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F=25.351$ ,  $p<0.01$ , 2유형 남성: 9시간 55분, 3유형 남성: 9시간 10분), 이들이 가정관리와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2유형 남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가사와 자녀돌봄에 투입할 가용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전담한다는 점에서 이들 유형의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1유형을 살펴보면(전체의 8.5%), 남성의 일 시간은 7시간 42분, 여성 역시 8시간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표준시간을 시장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의 가정관리시간은 2시간 18분, 자녀돌봄시간은 1시간 14분,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은 1시간 48분, 자녀돌봄시간은 1시간 25분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시간과 가사노동, 자녀돌봄시간이 남녀 간 유사하게 배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의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가정관리와 자녀돌봄시간을 합산한 시간)만을 살펴보면, 남성은 하루 3시간 32분의 무급노동을, 여성은 하루 3시간 13분의 무급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더불어 이들 남성의 가

사노동과 자녀돌봄 시간은 다른 유형의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가사노동시간:  $F=351.296$ ,  $p<.001$ , 자녀돌봄시간:  $F=12.461$ ,  $p<.001$ ). 이에 해당 유형을 젠더 평등 유형(Gender egalitarian model: 유형1)으로 칭하는데,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한국의 맞벌이 부부 중에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시장노동과 가사·돌봄노동에 시간을 배분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유형별 남성과 여성의 시간 배분(일, 가정관리, 자녀돌봄)

<표 7> 유형별 남성과 여성의 시간 배분(일, 가정관리, 자녀돌봄)

		남성시간				여성시간			
		한계 시간	95% 신뢰구간		p값	한계 시간	95% 신뢰구간		p값
1유형	일	7시간 42분	7시간 2분	8시간 22분	0.000	8시간	7시간 23분	8시간 36분	0.000
	가정관리	2시간 18분	2시간 6분	2시간 30분	0.000	1시간 48분	1시간 24분	2시간 11분	0.000
	자녀돌봄	1시간 14분	57분	1시간 31분	0.000	1시간 25분	59분	1시간 51분	0.000
2유형	일	9시간 55분	9시간 40분	10시간 10분	0.000	8시간 18분	8시간 2분	8시간 34분	0.000
	가정관리	17분	14분	21분	0.000	1시간 31분	1시간 22분	1시간 40분	0.000
	자녀돌봄	36분	30분	42분	0.000	1시간 35분	1시간 25분	1시간 46분	0.000
3유형	일	9시간 10분	8시간 47분	9시간 32분	0.000	4시간 19분	3시간 56분	4시간 42분	0.000
	가정관리	15분	10분	20분	0.000	3시간 13분	2시간 59분	3시간 28분	0.000

		남성시간				여성시간			
		한계 시간	95% 신뢰구간		p값	한계 시간	95% 신뢰구간		p값
	자녀 돌봄	30분	22분	39분	0.000	2시간 53분	2시간 38분	3시간 8분	0.000
집단 차이	일	F= 25.351*** 1유형<3유형<2유형				F= 325.901*** 1유형=2유형>3유형			
	가정 관리	F= 351.296*** 1유형>2유형=3유형				F= 107.781*** 1유형=2유형<3유형			
	자녀 돌봄	F= 12.461*** 1유형>2유형=3유형				F= 51.258*** 1유형=2유형<3유형			

주: \*  $p < .05$  \*\*  $p < .01$  \*\*\*  $p < .001$

## 2. 유형별 집단 간 차이

그렇다면 시간 배분의 유형화의 차이에 따라, 이들 집단이 가진 특성 역시 차이를 보이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형별로 남성과 여성의 인구학적 변수, 직장 변수의 차이와 가구 변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먼저 남성의 인구학적 변수와 직장변수 중 유형별 차이가 있는 변수를 살펴보면, 이들의 성역할 태도( $p < .001$ ), 직업유형 ( $p < .05$ ), 개인소득( $p < .05$ )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참고<표 8>). 먼저 성역할 태도로 유형3(상대적 남성생계부양자 유형), 유형2(표준유형), 유형1(젠더평등유형)의 순서대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해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F = 7.70$ ,  $p < .001$ ), 이는 앞서 살펴본 이들 남성의 실제 시간 배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직업 유형의 경우 1유형(젠더평등유형)의 남성의 경우 다른 유형의 남성에 비해 관리전문직의 비중(42.9%)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남성의 노동시간이 짧고 가사와 자녀돌봄에 대한 시간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남성들보다 노동 시간의 유연성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남성의 개인 소득을 살펴보면, 1유형의 남성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1유형: 20%, 2유형: 7.3%, 3유형: 8.4%), 동시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도 다른 유형의 남성보다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1유형: 45.7%, 2유형: 31.1%, 3유형: 26.8%), 즉 이는 1유형의 남성의 짧은 노동시간은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하나는 소득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이 짧은 형태가

있으며 다른 극단에는 고소득의 전문직, 관리자의 위치에서 있으면서 노동시간도 길지 않은 형태인 것이다. 한편 3유형(상대적 남성 생계부양자 유형)의 남성은 2유형(표준유형)의 남성과 월 평균 개인소득을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맞벌이 여성의 인구학적 변수와 직장변수를 중심으로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참고<표 9>), 인구학적 변수로는 성역할 태도( $p < .01$ ), 직장변수로는 직업유형( $p < .001$ ), 종사상지위( $p < .001$ ), 개인소득 ( $p < .001$ ), 취업형태( $p < .001$ )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성 역할 태도의 경우 1유형(젠더평등유형)의 여성은 2유형(표준유형), 3유형(상대적 남성생계부양자 유형)의 여성보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4.77$ ,  $p < .01$ ). 이는 유형별 남성의 성역할 태도의 차이와 유사한 결과로, 상대적으로 비슷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과 여성이 부부로 결합되어 실제 자신과 배우자의 시간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변수(직업유형, 종사상지위 등)에서 맞벌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유의수준( $p < .001$ )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형에 따른 여성 간의 노동시장 지위의 차이가 남성들보다 더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맞벌이 여성의 직업 유형의 특성을 살펴볼 때, 1유형의 여성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관리전문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1유형:48.6%, 2유형:39.2%, 3유형:27.5%), 사무 종사자(1유형:34.3%, 2유형:28.6%, 3유형: 12.2%)의 비중도 1유형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유형에서 2유형, 3유형의 순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종사상 지위가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유형 순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관리전문직의 비중은 낮고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 노무직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유형 여성의 절반(51.9%)은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유형별 맞벌이 남성의 특성

변수		구분	1유형 (젠더평등)	2유형 (표준)	3유형 (상대적 남성 생계 부양자)	F값 또는 $X^2$
인구 학적 변수	연령	세	42세	40.5세	41.3세	F= 1.11
		종종이하	1 (2.9)	4 (1.5)	5 (3.8)	$X^2 =$ 11.8207
	교육 수준	고졸	3 (8.6)	61 (22.3)	30 (22.9)	
		대졸(2년제 포함)	24 (68.6)	189 (69.2)	86 (65.6)	
		대학원졸 이상	7 (20.0)	19 (7.0)	10 (7.6)	
		합계	35 (100)	273 (100)	131 (100)	
직장 변수	성 역할 태도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 지지	3.34	3.01	2.77	F= 7.70*** 1)2)3
	직업 유형	관리전문직	15 (42.9)	63 (23.1)	29 (22.1)	$X^2 =$ 21.6422*
		사무직	8 (22.9)	79 (28.9)	21 (16.0)	
		서비스판매직	4 (11.4)	44 (16.1)	22 (16.8)	
		기술직	6 (17.1)	71 (26.0)	42 (32.1)	
		단순노무직	2 (5.7)	14 (5.1)	13 (9.9)	
		직업군인	0 (0.0)	2 (0.7)	4 (3.1)	
		합계	35 (100)	273 (100)	131 (100)	
	종사 상 지위	상용직	24 (68.6)	203 (74.4)	85 (64.9)	$X^2 =$ 9.7909
		임시일용직	1 (2.9)	10 (3.7)	5 (3.8)	
		자영업자	9 (25.7)	60 (22.0)	40 (30.5)	
		무급가족종사자	1 (2.9)	0 (0.0)	1 (0.8)	
		합계	35 (100)	273 (100)	131 (100)	
	개인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 (20.0)	20 (7.3)	11 (8.4)	$X^2 =$ 21.3130**
		200~400만원 미만	12 (34.3)	168 (61.5)	85 (64.9)	
		400~600만원 미만	14 (40.0)	67 (24.5)	30 (22.9)	
		600~800만원 미만	0 (0.0)	13 (4.8)	1 (0.8)	
		800만원 이상	2 (5.7)	5 (1.8)	4 (3.1)	
		합계	35 (100)	273 (100)	131 (100)	
	취업 형태*	전일제 근로	25 (100)	209 (98.1)	87 (96.7)	$X^2 =$ 1.2318
		시간제 근로	0 (0.0)	4 (1.9)	3 (3.3)	
		합계	25 (100)	213 (100)	90 (100)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취업형태(전일제, 시간제)는 임금근로자(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제외)만 응답하여 남성 중 임금근로자인 328명이 응답한 결과이다.

주3: ( )안의 숫자는 해당 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1유형과 2유형 여성의 대부분은 상용 종사자(1유형: 71.4%, 2유형: 68.9%)로 일하고 있으나, 3유형 여성에서 상용 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여성에 비해 매우 낮으며(29.8%), 임시일용직 비중(36.6%)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13%)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임금근로자 여성의 취업 형태의 차이에서도 확인되는데, 1유형과 2유형 여성 중 임금근로자인 여성의 대부분은 전일제로 일하고 있으나(1유형: 80.0%, 2유형: 85.2%), 3유형 여성의 대부분(82.8%)은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일자리의 특성이 소득에도 반영되어 3유형 여성의 대다수가 200만원 미만(83.2%)의 낮은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별 여성의 개인 소득분포의 차이를 살펴 볼 때 1유형, 2유형, 3유형 순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별 맞벌이 남녀의 차이는 이들 가구 특성에도 반영되는데(참고 <표 10>), 유형별 가구 특성의 차이로는 가구 총 소득( $p < .001$ )과 만 10세 미만 자녀 수( $p < .001$ )에 있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1유형(젠더평등)의 경우 일부 저소득 가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으며 다음으로는 2유형(표준유형)의 가구, 3유형(상대적 남성생계 부양자) 가구 순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만 10세 미만의 자녀 수의 경우 3유형의 가구의 만 10세 미만 자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1유형과 2유형은 만 10세 미만 자녀의 수는 평균 1.4명이나 3유형의 경우 평균 1.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막내 자녀의 연령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의 차이가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연령 차이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3유형)에서 돌봄의 책임을 여성이 상당부분 무급노동을 전담하는 형태(반일제 노동-가사와 돌봄 전담)로 시간 배분을 한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표 9〉 유형별 맞벌이 여성의 특성

변수		구분	1유형 (젠더평등)	2유형 (표준)	3유형 (상대적 남성 생계 부양자)	F값 또는 $X^2$
(여성) 인구 학적 변수	연령	세	38.7세	38.5세	38.9세	F=0.17
	교육 수준	중졸이하	1 (2.9)	6 (2.2)	10 (7.6)	$X^2$ =12.6982*
		고졸	5 (14.3)	57 (20.9)	26 (19.8)	
		대졸(2년제 포함)	27 (77.1)	180 (65.9)	89 (67.9)	
		대학원졸 이상	2 (5.7)	30 (11.0)	6 (4.6)	
		합계	35 (100)	273 (100)	131 (100)	
	성 역할 태도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 지지	3.83	3.53	3.42	4.77** 1)2=3
(여성) 직장 변수	직업 유형	관리전문직	17 (48.6)	107 (39.2)	36 (27.5)	$X^2=42.355$ 6***
		사무직	12 (34.3)	78 (28.6)	16 (12.2)	
		서비스판매직	5 (14.3)	53 (19.4)	46 (35.1)	
		기술직	0 (0.0)	18 (6.6)	11 (8.4)	
		단순노무직	1 (2.9)	17 (6.2)	22 (16.8)	
		합계	35 (100)	273 (100)	131 (100)	
	종사 상 지위	상용직	25 (71.4)	188 (68.9)	39 (29.8)	$X^2$ =61.3102***
		임시일용직	5 (14.3)	41 (15.0)	48 (36.6)	
		자영업자	4 (11.4)	33 (12.1)	27 (20.6)	
		무급가족종사자	1 (2.9)	11 (4.0)	17 (13.0)	
		합계	35 (100)	273 (100)	131 (100)	
	개인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0 (28.6)	117 (42.9)	109 (83.2)	$X^2 =$ 78.0998***
		200~400만원 미만	18 (51.4)	124 (45.4)	20 (15.3)	
		400~600만원 미만	5 (14.3)	25 (9.2)	2 (1.5)	
		600~800만원 미만	0 (0.0)	5 (1.8)	0 (0.0)	
		800만원 이상	2 (5.7)	2 (0.7)	0 (0.0)	
		합계	35 (100)	273 (100)	131 (100)	
	취업 형태	전일제 근로	24 (80.0)	195 (85.2)	15 (17.2)	$X^2 =$ 135.1186***
		시간제 근로	6 (20.0)	34 (14.8)	72 (82.8)	
		합계	30 (100)	229 (100)	87 (100)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취업형태(전일제, 시간제)는 임금근로자(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제외)만 응답하여 여성 중 임금근로자인 346명이 응답한 결과이다.

주3: ( )안의 숫자는 해당 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표 10〉 유형별 맞벌이 가구의 특성

변수		구분	1유형 (젠더평등)	2유형 (표준)	3유형 (상대적 남성 생계 부양자)	F값 또는 $X^2$
가구 변수	가구 총 소득*	200만원 미만	1 (2.9)	2 (0.7)	1 (0.8)	$X^2$ =51.2281***
		200-400만원 미만	4 (11.4)	42 (15.4)	52 (39.7)	
		400-600만원 미만	9 (25.7)	115 (42.1)	55 (42.0)	
		600-800만원 미만	11 (31.4)	65 (23.8)	14 (10.7)	
		800만원 이상	10 (28.6)	48 (17.6)	8 (6.1)	
		합계	35 (100)	272 (100)	130 (100)	
	가구원 수	명	4.1명	4.0명	4.0명	F=0.65
	10세 미만 자녀 수	명	1.4명	1.4명	1.7명	F=8.29*** 1=2<3
	막내 자녀 연령	세	5.0세	5.0세	4.5세	F=1.66
	조 부모 여부	동거안함	34 (97.1)	249 (91.2)	127 (96.9)	$X^2$ =5.5901
		동거	1 (2.9)	24 (8.8)	4 (3.1)	
		합계	35 (100)	273 (100)	131 (100)	
	자가 소유 여부*	자가	6 (17.1)	35 (12.8)	22 (16.8)	$X^2$ =3.5622
		전세	27 (77.1)	196 (71.8)	92 (70.2)	
		월세	2 (5.7)	41 (15.0)	16 (12.2)	
		합계	35 (100)	272 (100)	130 (100)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가구소득과 자가소유여부에는 437가구가 응답하여 2가구의 결측치가 존재한다.

주3: ( )안의 숫자는 해당 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 3. 유형별 주관적 인식의 차이

마지막으로 이들 유형에 따라 주관적인 만족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의 경우 1유형의 남성이 2유형과 3유형의 남성들보다 시간부족감( $p < .1$ )과 피로감( $p < .05$ )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유형의 여성이 다른 집단의 여성들보다 시간부족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p < .05$ ), 이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유형의 남성의 경우 다른 유형의 남성들보다 시장노동 시간이 짧다는 점, 3유형 여성 역시 다수가 반일제로

일함으로써 이들이 느끼는 시간부족감이 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3유형(상대적 생계부양자 유형)의 남성과 여성이 다른 집단의 여성과 남성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남성:  $p < .01$ , 여성:  $p < .1$ ), 가사 분담의 만족도 역시 유형3의 여성이 다른 집단의 여성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1$ ). 3유형의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의 지위가 낮고, 이러한 부분은 소득으로 반영되어 가구 총 소득은 낮으나, 만 10세 미만 자녀의 수는 많아 돌봄의 책임이 높은 상황, 돌봄과 가사의 역할이 여성에게만 편중됨으로써 사실상 이들 부부의 삶의 만족도와 여성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다른 집단의 여성과 남성에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 유형별 주관적 인식 차이

남성					여성				
	1유형	2유형	3유형	F값/ 사후분석		1유형	2유형	3유형	F값/ 사후분석
시간 부족감	2.94	3.28	3.20	$F=2.89+1<2=3$	시간 부족감	3.54	3.37	3.14	$F=6.468^{**}1=2>3$
피로감	3.06	3.34	3.39	$F=4.331^*1<2=3$	피로감	3.37	3.42	3.30	$F=2.266$
삶 만족도	3.57	3.29	3.05	$F=5.057^{**}1=2>3$	삶 만족도	3.66	3.43	3.31	$F=2.541+1=2>3$
가사 분담 만족도	3.51	3.49	3.40	$F=.573$	가사 분담 만족도	3.37	3.01	2.87	$F=2.913+1=2>3$

주1: +  $p < .10$  \*  $p < .05$  \*\*  $p < .01$

주2: 1유형: 젠더평등모델, 2유형: 표준모델, 3유형: 상대적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임.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은 4점 척도로 측정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을 부족감과 피로감을 많이 느끼며, 삶 만족도와 가사분담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후분석은 LSD에 대한 결과이다.

## IV.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사실상 대부분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은 남편이 장시간-여성이 표준시간 근로를 하며,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돌봄의 책임이 많은, 즉 어린 자녀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가사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여성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반일제)을 통해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유형(남성 장시간-여성 반일제)의 가구의 경우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여성의 개인 소득이 낮고, 이들 가구의 남성들 역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지위가 낮아 이들 가구의 소득 역시 다른 집단보다 낮고, 이들 부부의 삶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탈피하지 못하며, 돌봄의 책임이 많은 부부의 경우 여성이 이를 전담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시간배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비록 소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가구 소득도 높은 일부 부부들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노동시간과 가사·돌봄 시간의 배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집단의 남성 자녀돌봄시간이 다른 집단의 남성에게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더불어 이들 남성의 노동시간이 짧음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로감과 시간부족감도 낮다는 점은, 사실상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내에서 이들의 노동시장의 지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성 역할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계층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sping-Andersen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진 현대사회의 변화를 ‘혁명’이라고 표현하였으나, 가정 내에서의 가사와 돌봄에 대한 분담은 고전적인 성 역할이 고수됨에 따라 사회적 성평등의 변화를 지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미완의 혁명(incomplete revolu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더불어 Esping-Andersen은 자신의 저서(끝나지 않은 혁명)에서 이러한 혁명이 소수의 상위계층에서만 이루어지는 계층화 현상을 우려하면서, 이는 현재 세대 내 불평등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쳐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사실상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의 결과는 Esping-Andersen이 명명한 ‘미완의 혁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정 계층에게서만 나타나는 ‘완성된 혁명’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상 젠더 평등을 위해서는 가정 내의 시간 배분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점은 남성들이 실제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맞벌이 남성이 하루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이들이 가진

성역할 태도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제 가사나 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 이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돌봄의 책임이 많은 부부의 경우, 안정된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을 획득하기 쉬운 '남성'들이 장시간 노동을 택하고 여성들이 이를 포기함으로써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것이 이들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일 것이다. 이에 한국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전히 M자 곡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가 1995년 성별 임금격차 지표를 발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하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법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018년 3월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일부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52시간제로 인해 특별근무,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개별 근로자들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뉴스핌, 2020년 6월 20일 자), 더불어 노동시간의 자율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근로자들 보다도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sup>9)</sup> 더불어 이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만 을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일부 소수의 집단만 적용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더불어 전일제 노동이 표준화된 한국 노동시장에서,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성이나 임금수준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sup>10)</sup> 여성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시간제 노동을 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고용의 75%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였으며(Kenworthy, 2012), 현재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는 엄격한 고용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조돈문, 2014; 남재욱·이다미,

9) 이아영 외(2019)의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노동시간과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비교하였는데,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8시간,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1.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42.6시간)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10) 남재욱·이다미(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조건을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의 노동시장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써 시간제 일자리의 도입을 주장한다.

2020). 즉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차지함으로써, 노동시장과 가사분담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한국에도 ‘좋은’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의 영유아의 보육기관 이용률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여성들이 선뜻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시간 전일제 노동이 표준화된 상황에서 ‘일하는 엄마’의 가정의 아동들이 장시간 보육기관에 머물 수밖에 없고, 부모 역시 퇴근 후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상황 때문이다. 이에 ‘좋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한국의 노동시장과 가사노동의 현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더불어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단순히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선택지가 됨으로써 돌봄의 책임이 높은 부모들에게 돌봄을 분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돌봄의 책임이 많은 부부에 대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자녀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시간제 노동과 함께 대부분의 가사와 돌봄을 전담함으로써, 이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고, 이들 부부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ncy Folbre(1994)는 자녀 양육이 미래의 경제활동인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자녀양육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언급하는데, 즉 자녀 양육에 대한 혜택은 단지 이들을 양육하는 부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 구성원 전체가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외부성(externality)을 가지는 공공재가 정부의 개입 없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제학적 현상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개별 가구에게만 전가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산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이 상당부분 개별 가구에게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무상보육의 확대, 일가정양립제도의 확대, 2018년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해 자녀 돌봄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양육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여성이 경력개발을 포기하거나 단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차 소득자의 상실로 인한 기회비용은, 현재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녀의 수가 많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들

의 가구 소득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자녀 수와 가구 소득 부족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들 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구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자녀수가 많고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현재의 '사회수당(demogrant)' 형태인 아동수당의 급여를 높이는 방안 등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여성의 노동참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선 가구 소득과 자녀수를 기준의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이들 가구의 소득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결과로 귀결 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뿐만 아니라 여성 간의 노동시장 격차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의 아동수당의 금액을 높이는 방안인데, 아동수당인 '사회수당(demogrant)'은 기여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특정 연령이나 성별 기준만을 충족하는 경우 무조건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이러한 특성(연령이나 성별)이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역 유인을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빈곤 완화에는 효과적인 급여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재의 '아동수당'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향은,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 동기를 저해하는 역 유인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이들 가구의 자녀 양육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가 심하고 장시간 근로가 표준적인 상황에서, 많은 자녀가 있는 경우 많은 현금 지원을 받도록 하게 하는 아동수당 역시, 급여 수급 요건이 소득요건과 같은 선별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의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아동이 많은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에 대한 논의는 아동 양육에 대한 비용 실질적으로 보전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해당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슬이·정익중(2021).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 영향요인”. 여성연구. 제108권 제1호. 281-308.
- 권소영·이재림(2019).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유형화 및 유형별 일·생활균형: 근로시간의 양,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7권 제4호. 1-25.
- 김주희(2012).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주희·이기영(2015).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9권 제2호. 101-125.
- 김진옥·고은주(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2호. 185-212.
- 김진옥·최영준(2012).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2호. 31-54.
- 남재욱·이다미(2020). “한국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가능한가?”.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187-211.
- 뉴스핌(2021년 6월 20일자). ““가뜩이나 일할 사람 없는데”...주 52시간 시행에 중소기업들 울상”.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18000972>에서 2021년 12월 22일 인출.
- 서지원(2015). “발표 1 :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0차 정기총회. 87-103.
- 신영민·황규성(2016). “한국의 노동시간 계층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3호. 17-47.
-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2014). 끝나지 않은 혁명: 성 역할의 혁명,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도전. 나눔의 집.
- 유성경·방지원·임인혜·최보운·김수영(2020).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신념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여성연구. 제107권 제4호. 109-141.
- 이아영·황남희·양준석·안영(2019).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연주·이기영·최현자(2012).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16권 제4호. 195-211.
- 조돈문(2014).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5호. 31-62.
- 조미라(2018). “한국 기혼부부의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1호. 7-32.
-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27-49.
- 통계청(2017).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 통계청 보도자료(2017년 6월 21일자)
- \_\_\_\_\_(2022). 맞벌이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에서 2022년 3월 18일 인출.
- 허수연(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177-210.
- Kenworthy, L. (2012). Labour market activation. In Castles, F. G., Leibfried, S., Lewis, J., Obinger, H., & Pierson, C.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pp. 435-447), Oxford university press.
- Folbre, N. (1994). Children as Public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86-90.
- Chatzitheochari, S., & Arber, S. (2012). Class, gender and time poverty: a time-use analysis of British workers' free time resourc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3(3), 451-471.
- 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 Latent Class Analysis: A Guide to Best Practic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6(4), 287-311. doi:10.1177/0095798420930932

## Abstract

## A study on time allocation for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Bobae 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time distribution of dual-income couples with young children is divided into, an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m and subjective perceptions are different by the subgroups. For this, with 2019 Time Use Survey(Statistics Kore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for 439 dual-income coupl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using both men and women's working hours, house work hours, and childcare hours as variable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are three different subgroups, and depending on the subgroup, there are differences in individual(both men and women)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subjective perception. Most of the dual-income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llocate their time such a way that men work long hours, women work standard hours, and women do most of the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some couples with many young children, women take the most responsibilities of housework and child care by reducing their working hours(part-time work), but these women's labor market status is low, these couple's household income and their life sanctification also low than other couples. On the other hand, few dual-income couples with relatively higher labor market status showed gender-equal time distribution. Overall, this result is shows 'stratification' in which time distribution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labor market status and income. Based on these results, changes in long working hours culture, the need for 'decent' part-time jobs, and the need for income support for households with many young children are mentioned as policy suggestions.

**Keywords :**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Time allocation, Gender equality, Latent profile analysis, Typological study

---

\* Doctoral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bobaejo@kihasa.re.kr)